



2021년 11월 29일

기다림 가운데 임하는 영적 축복

베드로후서 3:1-18

핵심 성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베드로후서 3:17)

베드로후서는 기다림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을 지내며 마지막 때에 대해 많은 질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것이냐고 물으며 신앙인들을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그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때와 그들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더더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 기대, 그리고 준비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다림을 통해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니라”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시간 낭비로 여긴다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종류의 기다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나의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병원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나 공사로 인한 정체가 풀리길 기다립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기다림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기다림은 되돌아오지 않는 그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의 낭비도 노력의 낭비도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은 선한 일이며 중대한 일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머무를 수 있는 합당한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뒤에서 정의를 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마음을 평화의 처소로 바꾸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 된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영적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대림절의 온전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성육신하기 원하시는 그분을 위한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 자비의 하나님,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기다려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깃들어 당신이 임하실 때에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Rev. John Mobley

Christian Church in Alabama-Northwest Florida

**2021년 11월 30일**

**영원하신 하나님, 유한한 인간**

시편 90편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돌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 돌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 버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영원성과 유한한 인간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시편 90편을 읽을 때, 저는 20세기의 위대한 뮤지컬인 사운드 오브 뮤직을 떠올리곤 합니다. 젊고 활기찬 여성 마리아는 곧 수녀가 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넘치는 에너지는 그녀가 규율에 따라 행동하기 원하는 다른 선배

수녀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수도원에서 쫓아내야 하는지 토론하며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골칫덩이 마리아를 어떻게 할까요?  
구름을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녀를 가만히 앉혀놓고 말을 듣게 할 수 있을까요?  
모래 위의 파도를 멈출 수 있을까요?  
골칫덩이 마리아를 어떻게 할까요?  
달빛을 당신의 손에 담을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구름을 잡아서 한자리에 고정시켜 놓을 수도, 모래 위의 파도를 붙잡아 둘 수도 없습니다. 달빛을 당신 손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다름 아니라 붙잡아 두려는 우리의 욕망이겠죠. 위에 말한 모든 내용들은 영속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려는 인간의 욕망을 꼬집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아주 미묘한 죄가 있는데, 그것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고 붙잡으려 하는 욕망입니다. 예수와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겠다고 제안했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 삶을 붙잡기 원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오늘 왔다가 내일 사라지는 선물과 같습니다. 아침에 돌아났다 저녁에 지는 풀과 같은 것이죠.

시편 기자는 우리의 비영속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점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시 90:12). 우리는 영원한 산성을 짓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 우리의 광채를 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을 서로 나누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벽 뒤에 숨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우리의 부를 쌓아 놓기 위해 “더 큰 헛간”을 짓는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법을 알아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으며, 바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축하하고 나누어야 할지를 깨달아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배운다면,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한시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가 거할 곳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계시되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삶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인생이 시작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Rev. Jay Hartley

Christian Church in Arizona

## 2021년 12월 1일

###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계시될지 상상해 보세요

이사야 1:24-31

성서의 본문이 “그러므로 (therefore)”라는 단어로 시작될 때면, 저는 저자의 의도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곤 합니다. 앞에 나온 내용을 부정하는 단어인 “그러나 (but)”과 달리, “그러므로”는 이전에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사야 1장의 도입부는 꼼짝하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담고 있는 이후의 부분들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을 향한

이사야의 예언은 마치 화가 난 상관의 질책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지혜와 능력으로 백성을 인도할 책임이 있던 그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낱알이 드러냅니다.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양육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끄러워하며 제멋대로인 십대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예배하지 않았고 과부와 고아로 대변되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끔찍하게 싫어하셨죠.

유대 민족뿐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들을 향한 이사야의 매서운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림절의 정신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며, 이어지는 파티와 행사들을 통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싶어 하죠.

하지만 대림절은 사순절과 마찬가지로 반성하고, 분별하고, 회개하는 예배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시작하시고 새 시대를 여셨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반성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유대의 왕들은 그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유대 백성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패와 무관심을 내어버리는 이들,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과 백성에게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화해와 회복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화해의 제안이 있지만 (24:16-20), 곧 더 무시무시한 비난이 뒤따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희망을 주기보다는 징벌의 선언을 하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어느 때는 마치 사랑의 마음이 너무 거칠게 표현되어 폭압적인 언어로 변화하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어떤 분이 “나는 낙관적이지 않다. 하지만 희망적이다”라 말하는 것을 들을 적이 있습니다. 희망은 이사야 곁에도 있었고, 예수님 곁에 계셨던 하나님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튼튼히 서 있을 때도, 우리 곁에 함께 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시정하며 진정한 변화를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함과 연민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순종은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강압이나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 상처 입기 쉬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떻게 고백과 회개의 영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모두를 위한 정의를 구하고 행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날 주님의 사랑을 상상해 보세요.

2021년 12월 2일

말라기 3:5-12

오늘 본문은 대림절 묵상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오늘 말씀은 희망적이지도, 행복하지도, 고무적이지도, 마음을 가볍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긍정의 말, 기쁨의 말, 그리고 “모든 것이 잘될 거야”라는 말만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기독교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도전받기를 원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경이로운 기회를 살아내기 위해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온한 만족감, 현상 유지 또는 무관심을 위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질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내 언약의 백성으로 서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기다림과 묵상의 시기인 대림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래전 선지자의 이 강력한 말씀은 우리가 이기심, 수치심,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며,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된 풍성한 생명의 약속을 등지고 부족하다고 울부짖을 때에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여 금방이라도 깨어질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며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성과 스스로를 지키는 방벽에 기대어 세상의 필요와 외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창조된 세상도 등집니다. 풍성한 사랑과 함께 나누어야 할 은혜를 우리 스스로 앗아가고 있는 것이죠.

친구 여러분,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폭풍과 같은 재앙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처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존재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이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지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나 자신의 필요, 나를 지키는 벽, 선입견과 두려움을 넘어 담대히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세상과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경험한 것과 같은 사랑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말을 깨고 나와 희망과 은혜, 연민과 온전함의 날개를 펼쳐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덮는 것, 우리 가진 것의 십일조가 아니라 더 큰 풍성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의 저의 소망이며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께서 영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닥칠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과 능력의 삼겹줄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단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은혜와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불러낸 관용, 화합, 평화 그리고 온전함의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원천이자 파트너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Rev. Jen Garbin

Christian Church in Canada

2021년 12월 4일

아가야...

누가복음 1:68-79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나 할머니가 저와 다른 자매들을 “아가야”라고 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할 때 그렇게 부르셨죠. 그것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해야 하고,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똑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세레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아들을 갖게 되었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명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가랴의 기쁨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의 아들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인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복음 1장 25절에 등장하는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의 찬양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애 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 기쁜 소식을 처음 전한 사람은 엘리사벳이 아니라 사가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아내에게 하실 일이 믿기지 않아서 말을 못 하게 되었죠. 그러나 누가복음 1장 68-79절 말씀에 의하면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의 아들 요한에게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찬양과 예언을 합니다.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이어서, 사가랴는 그의 아들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아가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종, 예언자 그리고 자녀. 아가야,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여라. 아가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전하여라. 아가야, 하나님이 세상을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여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니? 아가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전하여라. 아가야, 너는 이 말씀을 알고 있을 거야.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4:18-19). 제자회의 모든 “아가들”이신 여러분,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Rev. Joan Bell-Haynes

Central Rocky Mountain Region

2021년 12월 5일

빌리보서 1:3-11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9-11)

인생은 참 불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계속해서 변하거나 세상이 점점 덜 안전해진다고 느껴질 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우리가 평화에 초점을 맞추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측할 수 없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기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찾고, 우리가 찾은 그 평화를 상처받고 그리스도의 치유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 안의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고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바울은 그가 썼던 대부분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감사의 인사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러 도전과 위험 앞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죠. 우리는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교회로서 전례가 없는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정과, 교회, 지역 사회와 세상의 다양한 필요에 응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필요를 채워줄 만큼의 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질문 속에서 해답을 찾을 길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이 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인 삶과 교회의 삶을 재해석하고 혁신해 나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평화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는...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찬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신실함과 사랑으로 교회를 이어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이런 시기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큰 평화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평화에 대한 확신으로 닦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소서. 삶이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변화할 때 우리가 당신께 기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소서. 불안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평화를 갈망하는 이때,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사랑의 임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 무엇이 최선인지 선택할 수 있는 당신의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v. Dr. Betsy Goehrig

Christian Church in Florida

**2021년 12월 6일**

**애통하는 가운데 섬기고, 선포하며, 소망하십시오**

로마서 8:22-25

대림절은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에서 구하시고 새로운 평화가 깃든 새 날을 창조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은 인류의 고난을 목격했습니다. 그 고난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없는 것도 견딜 수 없는 이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외적으로는 무력함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무력함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현실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통이란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그저 눈물 흘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애통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시편 126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듯, 우리는 애통하며 밖으로 나가 씨앗을 심고 섬길 수 있으며, 기쁨으로 추수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순간은 우리가 타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섬길 수 있는 때이며, 함께함을 통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애통하고 부르짖으며 우리 삶에 위로와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애통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 평화와 치유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보고, 느끼고, 듣고, 인지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과 같이,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하는 가운데 소망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며, 새 날이 오면 우리가 온전하여질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애통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가운데 언제나 새로운 날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Amanda Gorman의 시 “The Miracle of Morning (아침의 기적)”은 그러한 새 날에 대해 말합니다.

While we might feel small, separate, and all alone,  
Our people have never been more closely tethered.  
The question isn't if we can weather this unknown,  
But how we will weather this unknown together.

우리 모두가 작고, 서로 떨어진 혼자만의 존재라고 느낄지라도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가까이 연결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막막함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묻지 마세요  
그보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 막막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질문해야 합니다.

We'll observe how the burdens braved by humankind  
Are also the moments that make us humans kind;  
Let each morning find us courageous, brought closer;  
Heeding the light before the fight is over.  
When this ends, we'll smile sweetly, finally seeing  
In testing times, we became the best of beings.

인류가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이겨냈는지 우리는 목격할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이 어떻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었는지요.  
매일 맞이하는 아침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더 가깝게 이끕니다.  
이 싸움이 끝나기 전 밝은 빛을 바라보세요.  
이 모든 일이 끝날 때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달콤한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최고의 존재가 됩니다.

Rev. Denise Bell

Christian Church in Georgia

2021년 12월 7일

## 시편 126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던가(시편 126:2b-3).”

시편 126편은 포로기 이후 쓰인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구원을 받고 회복된 역사를 기억하는 시편 기자는 기억과 소망 사이의 긴장을 담아 노래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에서 승리로, 환멸에서 평화로 바뀐 그들의 상황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반복되는 구원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다시 행하실 것입니다.” 절망의 시기를 지날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더 나은 날 더 밝은 날을 기대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이 노래를 듣는 독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날이란 웃음과 기쁨의 합성이 가득한 꿈의 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추수를 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고, 그 희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난 2년간 포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황폐해진 가족들과 함께 보고, 듣고, 걸었습니다. 질병과 죽음 그리고 파괴적인 힘에 붙들린 우리는 지도자들이 분열되어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증오했고 억압하도록 이끄는 것을 보며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영혼 깊은 곳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러한 두려움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선포하는 기쁨을 정작 우리 스스로는 경험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해 한 국가 또는 한 인종이 다른 국가나 인종 보다 낫다고 여기고,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한다면 누군가는 부와 지위를 빼앗길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고백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헌신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아이들이 희망과 미래의 기회를 잃진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는 상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치유받고, 온전해지며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해지기를 상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 사랑과 도움과 연민의 마음을 담아 함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광경을 상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을 통해 웃음과 기쁨의 합성으로 가득한 세상을 다시 한번 상상하게 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쁨을 약속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쁨은 영광과 환희로 가득 찬 아기 예수의 탄생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며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기억과 희망을 통해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Nadine Burton

Executive Regional Minister, Great River Region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2021년 12월 8일

## 무엇을 보려 광야로 나갔더냐?

누가복음 7:18-30

우리 교단의 총회장인 Teresa Hord Owens 목사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상상하는 제자”로 부르며 “우리가 용기를 갖고 미래를 상상하면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광야로 나가 세례 요한을 찾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용기 있게 의미와 목적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제국의 시스템 안에서 누리던 궁전, 값비싼 옷, 방종한 삶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 위해 과감히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제자를 보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성찰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분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나타나실 것이라 기대하는가? 우리는 어떤 증거를 바라는가?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궁전의 삶과 같은 소비 또는 은혜로운 사치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계시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성공’이라는 덧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광야로 들어가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 삶을 새로운 방향, “분열된 세상에 온전함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설정하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된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4세기와 5세기의 교회는 제국의 권력과 소비문화에 고착되며 그 소명을 망각했습니다. 그 시절 사막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불리는 (the Desert Abbas and Ammas [Fathers and Mothers]) 이들이 광야로 나아갔고,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며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갈구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특별한 사건 또는 계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강건케 하여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새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우리에게는 가난한 내면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Delio, Ilia, OSF: “The Hours of the Universe: Reflection on God, Science and the Human Journey, Orbis Books, 2021; p. 187).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던 원동력인 ‘가난’입니다.

“소유하고 다스리려 하는 사람은 받을 수 없으며,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탄은 모든 것이 값 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난한 영으로 주어진 것을 받고 감사를 드리는 기간입니다. 낮은 곳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알려줍니다.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잊힌 자, 연약한 자, 평범한 자, 노동자, 이민자, 혼자인 자, 노인, 말 못 하는 소, 냄새나는 양.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며 살 수도 없고 다운로드할 수도 없는 사랑을 가지신 가장 높은 하나님, 그는 스스로를 낮추어 인류와 우리를 품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같은 책).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하십시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길 기도합니다.

Rev. Teresa Dulyea-Parker

Christian Church in Illinois-Wisconsin

## 2021년 12월 9일

고린도후서 8:1-15

초대 교회는 지정학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을 연결시키고, 새로운 신앙공동체를 시작하고,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넓은 지역을 여행했죠. 그리고 바울을 헌금을 장려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던 시기 교회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가 홀로 감당하고 운영할 수 없을 만큼 그 규모가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사역의 파트너들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Disciples Mission Fund와 절기 특별헌금 (Special Day Offerings)을 통해 우리 교단의 사역을 지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의 주된 사역 중 하나는 갈라디아와 로마제국에 걸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독려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을 돕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일을 감당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겠죠.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기원후 40년 경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과 함께 예루살렘 지역의 인구 과잉, 그리고 로마제국이 부과하는 이중 과세는 지속적인 식량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헌금을 독려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 이유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멀리 떨어진 교회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프로젝트에 참여시킴으로 그들의 삶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각 교회들이 서로 다른 별개의 예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모두가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헌금하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하며, 표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들이 공동의 사역에 연계되어 있을 때, 그들은 서로를 멀리 있는 존재, 서로 다른 존재,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역을 장려했던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이 영적으로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해 있던 국제도시에 위치했던 공동체였고,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또한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선물이기도 했지만 때때로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지, 또는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몇몇 사람들이 더 많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누구는 먹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고린도 교회를 권면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교회를 본보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보다 부유하지 않았던 마케도니아 교회가 위에서 말한 헌금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간청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 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배경에는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헌금에 참여하는 것에 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마케도니아 교회에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교회가 더 분발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가서 두 교회의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사촌 교회에게 뒤처지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넉넉히 하십시오!”

작은 휴먼 드라마 같은 이러한 일들은 예전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동체의 사정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옳았습니다. 공동의 사역을 위해 서로 나누는 것은 교회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교회 간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해주며,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이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일치됨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Rev. Rick Spleth

Christian Church in Indiana

## 2021년 12월 10일

이사야 12:1-6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해 보고 그것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며 어떤 느낌이고, 또 어떤 소리일까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까요?

만약 글로 쓸 수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상상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써보시길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그림으로 그려도 좋고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 12장의 말씀은 아마 당신이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린 이미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본문 여섯 절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는 감사와 찬양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지나가고 위로가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계시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으며, 힘과 능력이 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하나님 사랑의 계시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랑은 이런 방법을 통해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요한 1서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 1서 4:18).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독자들에게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 깊은 사랑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해리 포터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의 결말 부분을 떠올렸습니다. 책을 보신 분들이나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요, 해리 포터는 덩블도어 교수에게 왜 볼드모트가 그를 건드릴 수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덩블도어는 해리 포터 어머니의 깊은 사랑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해리 포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깊은 사랑, 무조건 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고 그 사랑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해리 포터 이마에는 번개 모양의 표적이 있습니다 - 역자 주).

저는 우리 안에 기쁨이 샘이 차올라 그것이 환희의 찬양과 감사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이 거친 폭풍우 한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계시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계시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Rev. Ken Marston,

Christian Church in Kansas

## 2021년 12월 11일

이사야 12:2-6

이사야 12장 2-6절 말씀을 바탕으로 쓰인 음악 영상을 온라인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을 가장 먼저 발견하실 겁니다. 평온한 분위기의 예배당에서 영어로 들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곳에서 불리는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그 예배당은 잘 계획되고 개발된 소위 “위험이 없고 안정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그 예배 공간을 향해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특권이라고 여기는 “안전”이란 말을 전혀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서 가게 되죠.

Little Rock 근교의 Cephas Chapel의 열린 창문으로 말벌이 날아들어오는 어느 따뜻한 주일 아침, 버나드 매티슨 (Bernard Mattison) 목사님은 작은 제자회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이 “이 얼마나 놀라운 교제이고 얼마나 신성한 기쁨인가...” 하며 찬양을 인도할 때, 그 찬양은 흔하고 평범한 합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간증이며 기쁨의 간증이기도 했습니다. 찬양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에너지와 강세 그리고 당김음 등의 음악적 요소는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는” 인생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날, 그렇게 하나님과 서로를 의지하는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맞본 이사야와 유대 민족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 또한 이런 모습으로 이사야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든 우상, 인간적인 확신과 위로를 주는 우상을 의지하며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 노력하지 않게 하소서. 마라타나, 주여 속히 오소서!

Rev. Bill Rose-Heim

Christian Church of Greater Kansas City

## 2021년 12월 12일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스바냐 3:14-20

우리는 지금 슬픔과 고통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던 형태의 삶이 끝이 날 것이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 시대를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쁨을 상상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스바냐 3:14, 17).

곤경에 처할 때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의 웃음이 주는 기쁨, 따뜻한 안부의 전화, 좋은 친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수 있는 기쁨. 맞습니다. 기쁨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물론 “말은 쉽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기쁨에 대해 상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는 다시 불타오르며, 여러분의 열정은 새롭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제적이며 살아 숨 쉬는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충만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형태로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작은 마구간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임마누엘이 너 이스라엘에게 임하리라.”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기쁨을 온전케 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때 가졌던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 우리의 예전에 가졌던 불안, 두려움, 죄책감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안정을 찾았는지, 두려움이 어떻게 응답되었으며,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용서되었는지 기억하며 소망이 성취되는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때 주어지는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선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맛볼 수 있는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림절 기간인 오늘, 우리는 기쁨의 초에 불을 붙이며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 기록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4:4). 불확실과 시련의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기쁨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기쁨을 상상하며 모든 절망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 상상하세요. 상상해 보세요.

Rev. Don Gillett

Christian Church in Kentucky

## 2021년 12월 13일

### 요한복음 3:1-17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16).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성서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의 궁극적 계시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연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사야 9:6).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인 아들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념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한 그분, 목자들이 양 떼를 뒤로하고 찾아 나신 그분,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던 그분.

시므온은 주님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리스도를 품에 안을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응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적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믿음이며 이해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이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우리는 절망의 산, 슬픔의 웅덩이, 의심의 장벽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사랑의 계시인 구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34-35). 인류가 이 계명을 지킨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분열과 증오의 많은 부분이 경감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당신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해 보세요.

Rev. Eugene James

Christian Church in Michigan

## 2021년 12월 14일

### 이사야 11:1-9

크리스마스카드의 우편 배송이 시작되기 전... 동료들을 웃게 만들 만화를 복사하거나 인쇄하던 시대 이전... 오늘날과 같이 긴급한 소식과 관련한 글이나 밈, 이모티콘이나 그림 파일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기 훨씬 전... 에드워드 히스 (Edward Hicks)의 그림은 이미 미국 전역에 널리 퍼졌고 크게 유행했습니다.

19세기 초의 기술은 헉스에게 오일, 캔버스, 붓과 물감을 제공했고, 그의 그림은 나무 액자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송할 말과 안장이 있었겠죠. 또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여러 미술관, 법원, 시청에 약 62점으로 추정되는 그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지금껏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보았습니다.

독실한 퀘이커 신자였던 헉스는 ‘평화로운 왕국 (Peaceable Kingdom)’이라는 그의 작품을 통해 ‘평화’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널리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놀라운 그림으로 재탄생 된 것이죠. 헉스는 서로 잡아먹어야 할 동물들과 사람이 함께 있는 상상 속의 장면을 그림 속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림 속의 동물들과 사람은 조화롭고 화목한 모습입니다. 헉스는 이사야서 말씀의 이미지를 저채도의 Fork Art 스타일로 아름답게 캔버스에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첫 번째 그림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걸릴 곳에 어울리게 각각의 그림을 조금씩 다르게 다시 그렸습니다. 정착민과 토착민의 모습, 조약을 체결하는 모습, 입법하는 모습, 협력하여 일하는 장면이나 수확하는 장면 등, 다양한 사람들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없던 시대였지만, 그들은 평화를 주제로 한 이 그림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계시되었는지 상상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해 대림절이 돌아오면 저는 국립 미술관 (National Gallery of Art)에 걸려 있는 버전의 ‘평화로운 왕국’ 퍼즐을 다시 맞추곤 합니다. 퍼즐 박스를 열면 이전 해 성탄절에 맞추었던 조각들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 뿐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 성탄절 시기에 퍼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할머니가 맞추시는 모세 이야기의 한 장면, 토마스 키펬이드, 산타, 콜라 병과 같은 퍼즐을 통해 다양한 차이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 또한 500조각, 1000 조각, 2000 조각의 퍼즐을 색상 별로 분류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이겨 나갈 때, 큰 그림은 명확해지고 작은 성취에는 축하를 할 수 있겠죠.

“어린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6절). 제가 맞추는 퍼즐에는 세 명의 어린이가 등장합니다. 한 아이는 표범의 코를 굽고 있고, 한 아이는 한 팔로는 호랑이를 안고 다른 팔로는 사자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아이는 함께 뱀 굴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립에 있는 아기 그리스도의 이미지 같은 것들도 말이죠. 만약 헉스가 현재까지 그림을 그린다면 그가 그리는 아이들은 Malala, Greta, and Amanda G.의 모습과 닮았을까요? 아니면 제자회 교회 캠프의 청소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헉스는 그의 작품 중 하나의 가장자리에 다음과 같은 말을 써 놓았습니다. “그곳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당신의 놀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곳에 새로운 신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놀란 눈으로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이로운 일이 벌어질지 그 뚜껑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아기 예수님.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평화를 위한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소서. 우리가 두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우리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놀라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신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Rev. Paul Koch

Christian Church of Mid-America

2021년 12월 16일

빛나는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시편 80:1-7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시편 80:7).

대림절은 그동안 들 수 없었던 영광을 마주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듣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듣는 것 자체를 의미하지 않고, 듣고도 아무 말 없거나 선택적으로 듣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대림절은 우리를 초대하여 빛나는 얼굴을 상상하도록 합니다.

공동체 차원의 슬픔과 상실이 배경이 되는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주어지는 축복도 일시적인 영광도 구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실망과 불확실성, 절박하게 기다리지만 승리의 소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그저 잠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거나 장차 올 구원의 짧은 맛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선물입니다. 창조주의 빛나는 얼굴은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패배와 절망, 개인의 욕망을 향한 이기적인 노력, 그리고 수많은 죽음을 끊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과 호소를 대신했던 시편 기자의 외침은 지난 한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우리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팬데믹 상황과 팬데믹 이후의 소망에 대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안의 관계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집트에 있던 포도나무를 옮겨 심으신 하나님, 실내의 조그만 강단에서 전 세계의 청중을 향해 선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작은 등불을 열방을 향한 빛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은 억눌린 자와 낙심한 자의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작은 자와 큰 자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절실한 선언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며, 우리 사회와 영혼의 변두리에서 사이렌처럼 울리는 외침을 들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를 귀를 통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거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서 선포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 비취사”라는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선글라스를 벗고, 영적인 블루 라이트 차단 패널도 걷어내야 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위압하지도, 해를 끼치거나 파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빛날 때 비천한 자는 높아질 것이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상상하게 될 것이며, 우리 공동체는 풍성해지고, 주의 제자들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신 주님의 광채를 상상하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과 그 빛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몽과 같은 이야기 속 사람이든 최고의 동화 속 사람이든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선물이 무엇일지 상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담하고 단호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상상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증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Rev. Yvonne Gilmore

National Convocation

**December 17, 2021**

히브리서 10:32-39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39.)

Resilience (회복력, 강인함, 불굴의 의지) - 위기나 역경에 대응하거나 회복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능력

우리 모두는 때때로 어느 정도의 회복력이 또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도 이런 회복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저자와 독자, 그리고 그들의 정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쳤고, 그들의 공동체는 여러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고 낙담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해 2년 연속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두 큰 도전의 시기를 보내고 있죠. 질병에 걸리거나 수입이 끊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쳤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잃었습니다. 일부는 낙담해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친 마음에 주어지는 희망과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는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나아갈 길을 위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강인함과 회복력이 우리 자신의 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통해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성령님께서 빛을 주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 격려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믿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모든 이를 환영하는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위한 떡을 먹고,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해 부어진 사랑의 잔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길을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지쳤을 때에 힘을 찾길 바랍니다. 의심할 때에 희망을 찾길 바랍니다. 낙담할 때에 강인한 회복력을 찾길 바랍니다. 시인 Shane L. Koyczan는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깨졌다면 그 조각으로 예술을 만들어라.” 이것이 회복력이요 강인한 의지 아닐까요.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죠. “나의 성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몇 번이나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는 지로 판단하라.” 이것이 회복력입니다. 작가 Maya Angelou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 내가 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변화로 인해 내가 작아지는 걸 용납하지는 않겠다.” 이것이 회복력이고 이것이 강인한 의지입니다. 우리가 지쳐있는 때일수록, 이 능력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소망, 믿음,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에 임하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과 내일을 위한 희망을 주소서. 우리가 지쳤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속에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Rev. Sandy Messick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in the Northern Lights Region

**December 18, 2021**

시편 80:1-7; 이사야 66:7-11; 누가복음 13:31-35

전도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듯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작던지 크던지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성서도 많은 곳에서 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진통을 하고 때가 되면 해산을 합니다

(이사야 66:7-11). 양 떼들에게는 목자의 따뜻한 빛으로 양육되고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80). 죽을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31-35). 그러나 사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우리가 신실해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가 끝나는 때인 지금,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눈물 흘리게 했던 일 (시편 80:5), 고통을 주었던 일 (이사야 66), 애통했던 일 (누가복음 13), 그리고 깊은 기쁨으로 인도한 일. 지난 한 주 동안의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내용을 노트에 적으셔도 좋고요.

지난주 당신은 어떤 일을 통해 기쁨을 경험했나요? 그런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했던 일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일 중에 자연스럽게 그 기쁨을 경험했나요? 홀로 기뻐했나요? 아니면 여러 사람과 함께? 앉아 있었나요? 묵상을 하고 있었나요? 말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바쁘게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고 노트를 적다 보면 서구 문화가 성경을 얼마나 개인적인 신앙 성장의 도구로 이용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가 한 명의 개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한 명의 이야기는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창조 세계 전체를 은유하는 메타포일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서의 저자가 여인의 해산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진통과 해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이며 생명의 근원인 예루살렘에서 떠났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래와 이미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편 기자들,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찰할 때, 우리는 단지 한 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회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회복뿐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과 민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성서에서 말하는 바 신앙을 지키고 행동할 때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값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가르침이나 진정한 친절과는 거리가 먼 겉모습뿐인 친절을 요구하는 사회 구조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순응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겠습니까?

기쁨의 주간인 대림절 셋째 주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들에 답하며 그 의미에 대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어떤 질문들이 떠오르나요?

- ❖ 개인적인 삶에서 기쁨을 경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 ❖ 교회 공동체에서 기쁨을 경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 ❖ 당신의 이웃이나 당신이 거주하는 도시는 언제 기뻐했습니까?
- ❖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원으로서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Rev. Chris Morton

Christian Church in Nebraska

**December 19, 2021**

**뉴 노멀 (The New Normal)**

히브리서 10:5-10

5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6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7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8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9 그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10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용어는 불확실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의 전통을 따르고,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것인지 설명하는 데 계속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전의 것과 앞으로 올 것들 사이에서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레위기 전통에 의해 세워진 모세의 율법에서는 소와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구원 이후에는 이방인들도 새로운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뉴 노멀이었습니다. 그는 인류에 대한 경고가 되었고, 제물을 죽이던 제단을 친교의 식탁으로 바꾸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COVID-19과 변이 바이러스는 사회적 빈곤의 구멍이를 더 깊게 만들고, 인종과 문화적인 단절을 심화 시켰으며, 정치 (심지어 교회의) 양극화 현상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은 사회복지나 도덕성을 증진시키지 않고 희망을 고취시키지도 않는 우리 시스템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고민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Dietrich Bonhoeffer는 “근심하는 영혼으로 자신이 가난하며 불완전한 사람임을 알고 더 큰일을 기대하는 사람들만이 대림절을 축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림절은 고착된 구조에서 변화에 대한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즉 우리의 노멀을 변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통해 그러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숙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깊은 감사를 통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시금석으로 영접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씻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굳은 희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림절 찬양을 부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대림절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이 세상에 보내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둘째, 대림절 촛불들은 의심의 어둠에서 벗어나 희망, 평화, 사랑, 기쁨의 빛으로 나아 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하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확히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 우리의 목표를 재설정하여 미지의 세계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믿게 될 새로운 땅과 우리 위의 새 하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파트너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우리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이제 축하하고 은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실 새로운 일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려움을 떨치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담대히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이 많은 세상에 이미 오셨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Bishop Valerie Melvin

Christian Church in North Carolina

December 20, 2021

골로새서 1:15-20

가장 성스러운 절기인 대림절,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평강 안에서 있습니다. 새롭고 생명력 있게 선포되는 말씀,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대림절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굳건히 하고, 대림절 사랑의 표현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교회의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때보다 소리 높여 찬양하고 선포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음, 그 좋은 소식이 선포되는 대림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에서 십자가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본문의 저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찬양을 들려줍니다. 이 거룩한 노래에는 찬양과 경배, 평화를 향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은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찬양과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충만함과 온전함, 화해와 평화가 주어졌고,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물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소망과 바람은 탄생할 그분을 통해 성취되며,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영감을 받고 우리 머리를 높여 찬양과 선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함께 부르고 나누는 찬양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성육신의 진리를 축하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몸 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를 전할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 단절되고, 부서지고, 화해가 없기 때문에 초월적인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복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와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새 노래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의 오심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새롭게 되어 우리가 원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빛으로 우리의 일상을 비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박동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찬양과 사랑의 노래를 나누게 하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v. Thaddaeus B. Allen

West Virginia, Pennsylvania, and Northeastern Regions

2021년 12월 22일

Micah 4:1-5

우리는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하며 우리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대해 가르치실 때, 그는 우리에게 익숙한 상징이나 은유를 이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이든, 돌아온 탕자의 비유이든, 어린 양의 비유이든,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상하거나 학구적인 언어로 신학적 논쟁이나 토론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익숙한 것을 통해 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있고 무한하며 우리의 지성과 감각을 초월하는 그 사랑에 대해 탐구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상상하게 하며 가장 익숙한 장소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곳은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었습니다 (미가 4:2).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을 참으로 의미 있는 장소인 성전으로 초대하며, 미가 선지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앞으로 다가올 날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실 것입니다.

미가의 상상은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무기들은 양육과 발전을 위한 도구들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칼을 들고 전쟁을 하지 않고, 열방을 위하여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일로 돌아올 것입니다. 칼은 보습이 되어, 심고 수확하는 일에 이용되는 평화의 도구로 이용될 것입니다. 창은 낫이 되어 식물을 수확할 때 이용될 것이고요. 파괴와 전쟁을 위한 도구들이 변하여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용되기 때문에 이 땅에는 넘치는 풍요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용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미가 4:4).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을 위한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라는 선지자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 그래서 모든 이들의 필요가 충족될 때,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라는 말씀 (요한일서 4:18)과 같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만족을 위한 일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통해 이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Rev. Teresa “Terri” Hord Owens

General Minister and President

**December 23, 2021**

**누가복음 1:46-55**

우리 중 대부분은 삶의 균형, 즉 적절한 질서와 조화를 바랍니다. 저 또한 평온함과 안정을 갈망하죠. 사람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한 그런 계획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난 부가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통해 앞날을 예측하고자 하며 일관성과 익숙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아, 물론 저는 때때로 무질서나 혼란을 즐기기도 하는데, 그것은 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일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돈된 혼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놀이공원에 있는 경사진 바닥과 거울 벽으로 이루어진 집, 다양한 각도에서 복잡하게 그린 피카소의 초상화 같은 것 말이죠.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혼돈은 우리를 극도로 불안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며 우리를 서바이벌 모드로 몰아넣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맙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 특히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혼돈스러운 삶을 더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경기 침체나 사회 불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고되는

저임금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들은 그 유일한 소득원을 잃었을 때 심각한 불안정의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색 인종이고 피부색과 억양, 종교나 시민권 취득 여부 등의 차이 때문에 편견, 증오,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문을 나서는 것만으로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언제나 불균형적이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 또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이 불확실한 사람들에게 급격한 사회 변화나 불안은 오랫동안 지속되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 1장 46-55절에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는 그의 조력자이자 친척인 엘리사벳과 함께 성스러운 불균형과 거룩한 혼돈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성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극심한 불평등과 심각한 핍박의 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명백히 알려줍니다. 그것이 그들의 종교, 국적, 빈곤한 삶, 그녀의 성별 때문이든 아니면 그 시대가 억압과 폭력의 악순환이 지속되던 시대이든, 그들은 험난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에게 세상이 뒤바뀌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일 수도 있었겠죠. 교만한 자를 쫓아버리고, 높은 자는 낮아지게 하고 낮은 자는 높이고, 굶주린 자의 배를 채우고 부자는 먹을 것 앞에서 설설 기는 세상... 그렇기에 이러한 무질서는 사회 질서의 재정립이라는 꿈을 꾸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한나의 노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노래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우리들은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 끝이 보이지 않는 인종 차별, 그리고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다시 안정되고 익숙해지며 예측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요? 마리아의 노래를 묵상한 후에 그녀의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격동의 순간을 통해 수많은 세대를 통해 지속된 불의를 바로잡고 예수의 가르침과 그가 전한 가치 위에 세상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비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혼돈 속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Rev. Allen V. Harris

Christian Church in Ohio

December 24, 2021

##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는지 상상해 보세요

누가복음 2:15-20

1992년 크리스마스이브, 저의 남편 Doug Wirt는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 있는 First Christian Church에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12월 14일에 태어난 저의 아들 Rollie Wirt는 병원에서 막 집으로 돌아온 차였습니다. 밤에 전혀 잠을 자지 않았죠. Doug은 크리스마스이브 저녁 8시 촛불 예배의 크리스마스 설교 담당이었습니다. 촛불이 반짝이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려오는 사이로 Doug은 성찬 테이블 옆에 있는 흔들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에게 우리 아들을 건넸고, Doug은 흔들의자에 앉아서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찍 녹음해 놓은 설교가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흘러나왔죠. 고맙게도 아기는 아빠 품에 조용히 안겨 있었습니다.

설교는 아기를 안았을 때의 놀라움, 미래에 대한 기대, 앞으로 다가올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헌신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촛불 사이에서 Doug은 삶, 희망, 실망, 하나님께서 감싸 안으시는 사랑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매해 이 크리스마스의 이브의 광경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두 가지의 크리스마스이브의 광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경이로움을 품고, 반짝이는 불빛과 촛불과 소망에 사로잡혀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생각하는 시간.

2017년에 발행된 사도행전 주석에서 Willie James Jennings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공간에 계시고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곳에 함께 계시며, 그 장소를 하나님의 역사에 걸맞는 곳으로 바꾸신다” (4, Westminster/John Knox Press). 이 인용구는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란 어떤 곳인지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땅과 하늘이 이 작은 아이 안에서 서로 조우합니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 오늘날까지도 아직 들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품은 그 아이 안에서 말이죠. 계시의 순간, 정리되지 않은 마구간에 누인 아기라는 현실과 목동과 천사들의 축하가 공존하는 그 순간, 큰 노래와 큰 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됩니다. 인구 조사를 위한 정부의 이주 명령에 따라 고향을 떠난 가난한 젊은 부부는 한 아들을 갖게 되었고, 인구 조사에 숫자 하나를 더했던 그 아이로 인해 수천 년에 걸쳐 무수한 사람들의 신앙이 숫자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성서 번역으로 19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당시 마리아의 경험에 대해 보다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새번역)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개역한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개역개정)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공동번역)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이 새겨 깊이 생각하였다. (현대인)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해 두었다. (메시지)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쉬운 성경)

이 모든 번역가들과 주석가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에 바탕을 둔 묵상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간직하고, 기억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들을 어디에 간직했을지에 대해 번역가/주석가들은 각기 다르게 이해합니다. 마음, 생각, 중심, 또는 내면 깊은 곳...

당시에 실시간으로 이것을 경험했던 마리아처럼, 2021년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듣고, 혼자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뜻을 숙고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생각하고 깊이 느끼고,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을 수 있길 바라며, 그 아름다움에 숨을 고르고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이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신비를 마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

Rev. Cathy Myers Wirt

Christian Church in Oregon and Southern Idaho

December 25, 2021

## 이사야 9:2-7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연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우리는 종종 딸과 가장 친구 가족과 함께 축하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저는 Max가 그 모임에 참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Max는 훌륭한 할아버지이자 아버지, 남편, 그리고 목사였습니다. Max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접시에 담기 전에 항상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젊은이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젊은이들이 당신의 사람들이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위대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압니다.” 저도 이 말을 제 마음속에 새겼고,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종종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아기들... 아기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사랑과 기쁨을 끌어내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안고, 품에 품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유심히 살피고, 심지어 그저 숨 쉬는 것조차도 보고 싶어 참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의 부모는 병원에 있지도 않았고, 대기실에서 가족과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하는 아기입니다.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그를 품에 안고, 표정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고, 숨 쉬는 것을 구경하고...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 가슴이 가득 채워지는 것 같지 않나요? 아기의 부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위대한 운명을 가진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하기 때문에 상처 입기 쉽고, 전적으로 의존적이며, 너무나 아름다운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잊기 쉽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운명을 가진 이 아기를 기억하고, 그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오 거룩한 분,  
모든 생명의 창조자  
천사들과 함께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다.”  
마리아가 이 아름다운 아기를 건강히 출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녀 옆을 지키는 요셉을 위해  
지친 그들을 위한  
당신의 능력을 위해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이 소중한 아기를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기뻐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보호가

위대함과 기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아기의 여정에 함께 하길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과 평화와 은혜를 가져오길  
아멘!

Rev. Pamela Holt  
Christian Church in Oklahoma

December 26, 2021

## 우리의 헌신

사무엘상 2:18-20, 26 ; 누가복음 2:41-52 ; 골로새서 3:12-17

성탄절 이후 며칠 동안 세상은 대림절을 지내며 경험했던 소망, 기쁨, 사랑,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평화의 성령, 연합, 다양한 전통의 교회들. 그런데 이 신비로운 세계의 모습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쁜 스케줄로 돌아가게 되고 세상의 미디어에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물건을 사고 금방 허무해져 후회하게 되는 듯한 감정을 느끼고, 우리가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올해 사람들이 가장 열광했던 마케팅 캠페인은 무엇이었나요? 올해 여러분이나 제가 기대했지만 받지 못한 선물은 무엇인가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나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적은요? 그것은 팬데믹으로 인한 트라우마였나요? 새해를 시작하며 어떤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나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림절에 경험했던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놓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나의 아들이 평생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서약 때문이었을까요? 예수가 성장하여 온 인류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게 된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그를 위해 예배를 드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열두 살 된 예수가 실종되었다가 성전에서 발견된 후 그곳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던 고백과 서약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 예수의 평화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했던 서약과 다짐을 굳건히 붙들어야 하며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와 영적인 중심을 잃지 맙시다. 우리는 현재뿐 아니라 평화와 감사로 맞이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범한” 날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한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한나, 마리아와 요셉은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삶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우리가 소망과 인내와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합니다. 어려운 현실과 변화하는 문화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재구성해야 할 때도 말이죠.

성탄절의 은혜는 새롭게 다가올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할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이 주는 아름다움을 잃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평화 안에 거하기 위해 더 나은 날에 위한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에 치유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실제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일 년 내내 성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놀라운 세계를 향한 비전에 따라 살기를 기도합니다.

Rev. Richie Sanchez, Regional Minister and President – CEO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in the Pacific Southwest Region

December 27, 2021

##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1: 19b-24

오늘 말씀은 저에게 매우 소중한 성서 본문의 일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21절은 제 안수 예배 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저는 그날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저는 제가 침례를 받았던 교회로 가는 오래되고 익숙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처음으로 고백했던 곳이었죠.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곳입니다.

제가 안수 받던 날에는 여러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학생 목회자로 인턴 사역을 할 때 교회와 렉싱턴 신학교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그곳에 모였죠. 몇 사람들은 저에게 안수하기 위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 저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제 할머니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자매 한 분께서는 새 목회 가운에 있는 수많은 단추를 채우는 것을 도우러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목사님이셨던 저의 어머니께서 제 목에 스톨을 둘러뒀던 것을 기억합니다. 안수기도는 깊이가 있었고 아름다웠으며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기도문을 제 성서 안에 넣고 다닙니다. 정말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 마음속에 일었던 엄숙함 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아주 진지한 일이었습니다. 설교자는 많은 생각이 갖게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을 바칠 만큼 사랑했는가? 저는 목회자 자녀입니다. 저는 안수 받은 사람들이 걷게 되는 희생적인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도전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을 따를 때 함께 올 수 있는 성취감과 영혼의 만족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집사)와 할아버지 (장로) 그리고 목회자였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통해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던 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약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따르겠다는 서약을 매우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뒤돌아 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특정한 방식으로 살며, 특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써놓은 서약문의 특별한 문구들을 큰 소리로 읽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저만 주고받는 사적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제 마음의 가장 깊은 소망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소명 받은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신실하게 살기 어렵죠. 그러나 넓고 긴 파노라마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기쁨과 풍성함, 선함, 은혜, 자비, 정의, 친절이 가득합니다. 특히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소명과 나의 것을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만족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그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가라고 부르셨나요?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나요? 대림절은 당신의 부르심에 흥미로운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간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그분을 따르려는 당신의 의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깊고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Rev. Dr. Dara Cobb Lewis

Christian Church in South Carolina

December 28, 2021

## 그날까지

요한계시록 21:1-7

오늘 본문에 묘사된 역사는 창조의 멸망이나 인류가 다른 은하계로 이동하는 것을 기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깔려 있고 밝은 다른 세상의 이미지 같은 대중적이고 비종교적인 문화의 천국 묘사는 성서가 말하는 천국의 모습과 상당히 다릅니다. 세계를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종말론적 쓰레기처럼 버리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는 미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명을 만드는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때때로 세상이 그냥 없어지길 바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 계시록의 저자인 밋모섬의 요한에게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트라우마 같은 것이죠. 이 묵상집은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 읽을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2020년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COVID-19의 19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인 2019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꽤 긴 시간 동안 이 질병을 막고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유색인종에 대한 편협함과 부당한 공격을 목격했고, 조지 플로이드가 그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살해당하는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올해 미국 수도에서 일어난 끔찍한 폭등을 목격했죠. 캐나다에서는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 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는 수용시설에 살던 수백 명의 토착민 어린이 들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학대와 은폐의 고통스러운 증거입니다. 지난 2년은 신음, 눈물,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방식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의 헌금함은 우리의 슬픔으로 가득했겠죠.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은 그 영광스러운 음악과 깊이가 있는 가사에도 불구하고 비탄의 음악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헤쳐온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에게 희망과 확신을 줍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며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만난다는 사실로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신의 존재와 같은 이야기를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지 못할 불가능한 기쁨, 가짜 미소, 꾸며진 긍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과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길을 걸으셨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고, 심지어 부활 이후에도 손, 발, 옆구리에 우리 고난의 상처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울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Rev. Dr. Andy Mangum

Christian Church in the Southwest

December 29, 2021

##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힘

역대상 28:1-10

이 묵상은 전례 없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보살핌, 연민, 그리고 힘을 주셨음을 믿는 순전한 믿음으로 쓰였습니다. 이 묵상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뒤흔드는 거친 폭풍을 만났을 때 그로부터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혼란이 우리를 육체적, 정신적, 재정적, 정서적으로 재구성하게 만들더라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의 목적과 임재가 있는 곳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언약에 대한 헌신이 존재하며 이 헌신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위한 확고한 계획이 있으며, 저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계획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물론, 기복이 있을 수 있고 재정비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통로는 산 소망을 향해 있으며, 인류가 분열에서 돌아서 좁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중 얼마나 가던 길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훌륭한 생각과 아이디어는 모두를 위한 보살핌과 복지를 이루기 위해 잠시 보류되었고, 어떤 계획은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회복할 것입니다.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지, 성령님이 세상에서 얼마나 활동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시야를 넓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한 말을 상고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역대상 28:10).

당신은 폭풍우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환상적인 일을 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가 꿈꾸던 성전의 건축을 양도한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폭풍우와 같은 상태입니다. 과거로부터의 영향으로 인해 다윗은 사물을 다르게 보고 상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유산을 완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상상해야 할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존중하셨고, 다른 일족이 다윗의 계획을 완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가문이 대를 이어 그 일을 하게 하셨죠. 때때로 인생은 커브와 같은 변화구를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1969년, 한 여성이 비행학교에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다른 위치에 서있는 동안 대학과 진로에 대한 생각은 미뤄두었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의 두 딸은 함께 7개가 넘는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녀의 비행학교를 향한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을 위한 이상적인 정규 교육과 자급자족의 삶은 단지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렬되었을 뿐입니다. Post라는 단어는 “후에, 뒤따르는 것, 혹은 그 이후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끝났다, 완료했다, 마쳤다”라는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증언할 분이 계신가요?

바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10).

팬데믹과 기후 변화, 인종차별과 정치 사회적 불안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아기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주어진 약속을 믿고 굳건히 설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무대가 있습니다. 바로 “삶 (Life)”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사랑을 재해석하며 창의적으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 파티에 온전한 자신의 모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가 원하는 다른 모습의 어떤 것, 우리가 바로 그 존재입니다.

Rev. Dr. Christal L. Williams

The Christian Church (DOC) in Tennessee

## 2021년 12월 30일

역대하 1:7-13

오늘 본문에는 좋은 예로 자주 언급되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권력, 지위 또는 부를 구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잘 이끌 지혜를 구하죠. 이를 사랑스럽게 보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까지도 축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때인 오늘, 우리는 지난 12개월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찰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다른 조금 다르게 살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 변화해야 할 항목들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새해 소망과 결단 등 변화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나의 개인적이 삶이 나아지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삶에 이익이 될 변화를 원하지 않나요?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변화에 대해 고려해 본 적은 있나요? 내 변화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또한 우리가 갖게 되는 자기 발전에 대한 부담감 (죄책감을 포함해서요)을 생각할 때, 저는 혹시 우리의 성찰이 온전히 못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부여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일, 하지 못했던 일에 너무 집중하여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 일부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도 그의 사랑을 전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제 삶에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제가 미처 구하지 않았던 것들도 채워 주셨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새해의 시작을 맞아, 마음을 열고 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삶, 나의 가족, 친구, 지역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위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삶의 변화가 당신의 선한 창조 안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에게도 가치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Rev. Josh Patty

Christian Church in the Upper Midwest

## 2021년 12월 31일

버터 뒤의 크리스마스

대학 입학 후 첫째 날,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예정되었던 장학금에 문제가 생겼고,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600불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두 분 모두 8학년 졸업생이었던 부모님은 “방법을 알아볼게”라며 간단히 대답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복도 한가운데 있던 공중전화박스에 서서, 다른 방들의 모습을 보고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저는 머릿속으로 되뇌던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600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방으로 돌아갔고 체념한 상태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꿈을 꾸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까스로 잠자던 상태에서 벗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거의 네 시간이나 잠이 들어 있었던군요. 문을 열자 부모님께서 웃는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팔을 뻗어 저를 안아 주셨고, 아버지는 현금 600불을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사실 오늘까지도 부모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돈을 마련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한 번도 묻지 않았습시다. 그것이 제가 자라난 지역의 문화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의 전통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이 베푼 선한 행위를 그대로 대갚음하지 않았습시다. 어떤 사람이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행동에 너무 관심을 쏟으면 오히려 그 선행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남부 지방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시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는 문화적인 교육과는 반대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누군가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면 그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과하게 감사하는 행위를 피하는 것은 제 몸에 밴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감사를 받고 싶어서 좋은 것을 베푼다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했기 때문이죠.

대학교 첫해의 그 일이 있던 후 몇 년 동안은 집에 돌아가면, 특히 성탄절 시즌에는, 부모님의 냉장고에 있는 버터 뒤에 몰래 현찰을 조금씩 놔두곤 했습니다. 저희 집안의 전통이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은 저에게 그것에 관해 묻거나 고마워하시지 않았습시다.

제 아들의 가슴에 9인치의 암 종양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성탄절 바로 직후였죠. 저는 길을 잃은 것과 같이 느꼈고, 하나님과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카드와 이메일, 전화와 페이스북 포스트, 그리고 직접 집에 찾아오는 등의 방법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때때로 삶이 우리를 몰아붙이며 괴롭히고 소망이 없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세상의 빛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다른 이들의 눈에 비친 빛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그것은 저에게 버터가 될 것이고, 저는 그 버터 뒤의 것들에 대해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19절 중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Rev. Bill Spangler-Dunning

Christian Church in Virginia